

# 〈周生傳〉研究

## 文 範 斗

### 〈目 次〉

- |             |                     |
|-------------|---------------------|
| 1. 序 論      | 5. 作家的 삶과 小說的 投射    |
| 2. 作品形成의 背景 | 6. 葛藤構造의 寫實性과 史的 意義 |
| 3. 構成的 展開樣相 | 7. 結 論              |
| 4. 悲劇的 性格   |                     |

### 1. 序 論

石洲 權輿(1569~1612)은 宣祖代의 문인으로 40여세의 짧은 생애를 통해 독축한 자취를 남긴 當代의 奇人이었다. 土禍와 黨爭, 戰亂으로 노정된 봉건적 지배 질서의 모순에 대해 거침없이 통매했던 牢落不羈한 氣節은 진작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때로는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우분과 자탄으로 표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時俗과 絕緣한 채 窮谷에 묻혀 閉塞함으로써 觀照와 偷閑의 정감에 自適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佛門과 老莊을 넘나들면서 방만한 초월의지를 드러내는가 하면, 性理의 奧義에 침혹하여 布衣선비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外戚의 專橫을 譏刺한 宮柳詩 일 편으로 光海의 진노를 사 詩案에 걸려 죽기까지 그의 일생은 시대적 굴레를 멩에지고 간 고독한 방외자로서, 그 궤적이 그의 시문과 당대 문사들의 회고에 역력하다.

그가 특별히 주목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의 시대적 통찰이 문학양식을 통해 餘蘊없이 발휘된 점에 있다. 문학은 작가의 개성과 세계관의 언어적 등가물인 이상 當年의 시대정신과 작가의 의지적 대응의 방향이 투사되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士林派 文士들이 文以載道的 性情論에 의해 절제되고 조형된 文風에 구속되어 있었던 반면, 석주의 발랄한 문학정신은 자신의 체험과 통찰을 그대로 문학적 언어

로 형상화시킬 수 있었다. 그의 이러한 문학적 특징은 주제적, 소재적 측면 외에 다양한 문예양식을 통하여 이루어 내었던 기법적 문예미학적 성과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周生傳』은 석주의 소설작품이다. 애정을 주된 소재로 하여 작중 주인공이 겪는 세계 내에서의 경험을 傳奇小説의 형태로 꾸며낸 것이다. 본 작품은 學界에 소개된 이래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왔고 또 여러 각도에서 연구가 시도되었다. 그 연구 결과에 힘입어 이제는 어느 정도 작품의 기본적인 성격이 밝혀진 셈이다. 그러나 아직도 해명되어야 할 부분은 남아있고 그래서 보다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기왕의 논의들을 하나 하나 검토해 가면서 다각적인 접근방법을 동원하여 『주생전』의 형성배경, 구성적 특징, 미적 기조, 작가의식, 소설사적 의의를 밝혀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시를 포함한 방대한 양의 석주문학에서 산문문학상 그 정수를 보이는 『周生傳』의 문학적 가치가 상당한 부분 해명되리라 기대한다.

## 2. 作品形成의 背景

『周生傳』의 작자는 李明善의 『朝鮮文學史』年表가 유일한 근거가 되어 권필로 추정된 후 확정된 판단을 유보한 채 잠정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간 학계의 분위기는 특별히 石洲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부정할 이유가 없다는 선에서 정리되었다.<sup>1)</sup> 그러나 비록 본 작품이 석주의 所作이라는 결정적 자료는 없었다 하더라도 거듭되는 연구에서 나타난 여러 정황들을 그러한 심증을 굳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최근에는 文集의 기록을 토대로 작가의 문제를 실증적으로 밝혀 보려는 시도까지 있었다.<sup>2)</sup>

이와는 별도로 북한의 조선문학예술동맹 발행의 『림제·권필작품선집』에는 『石

1) 金一烈, 周生傳小考(어문논총11호, 경북대학교국어국문학과, 1977) p. p. 172.

2) 王淑誼, 周生傳의 比較文學의 考察, 漢陽大學校大學院, 1986, pp. 6~7 여기서 왕숙의는 작중인물인 周生이 석주가 직접 대면한 실재 인물일 수 있다는 것을 『石州集』에 실린 詩를 논거로 증명하려 하였다. 논거로 든 『送婁鳳鳴還杭州錢塘縣』의 婁鳳鳴을 직접 작중 주인공인 주생과 일치시키기에는 아직도 무리가 있으나, 시에 나오는 지명인 錢塘, 龍金門은 『주생전』의 배경이 되기도 하여 결과적으로는 『주생전』이 석주의 作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洲集』소재의 漢詩와 함께 몇 편의 散文을 번역하여 실고 있는데 여기에 「주생전」이 함께 들어있다.<sup>3)</sup> 이를 기왕에 소개된 국내본<sup>4)</sup>과 비교하면 국내본은 結末部에서 주생의 「踏沙行」일 편의 소개 후

余再三誦詠其詞不置 因探詞中情事 生於是不能諱 從頭至尾細說如右 因曰 幸勿爲外人道也 以艷其詩詞 歎奇遇而愴佳期 退而授筆 述之于爾

로 간략하게 마무리되어 있으나 북한본은 다소 길게 이어진다. 그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異其詞意 懇問不已 生乃自敘首眉如此 又自囊中出示一卷 名曰 花間集 生與仙花 裴桃唱和詩百餘首 詠其詞者又十餘篇 生爲余墮淚 求余詩甚切 余效元稹率詩三十韻 題其卷端以贈之 又從而懇之曰 丈夫所憂者 功名未就耳 天下豈無美婦人乎 況今三韓已定 六師將還 東風已與周郎便矣 莫慮喬氏之銷於他人之院也 明早泣別 生再三稱謝曰 可笑之事不必傳之也 是生年二十七 眉宇洞然 望之如畫 癸巳仲夏無言子 權汝章記

국내본에 비한다면 서술자의 발언이 다소 길게 덧붙혀 있고 俳桃와 仙花 사이에 주고 받은 시를 모은 「花間集」을 보여주고 그 말미에 元稹의 眞率詩 30韻을 따서 책 끝에 써 주었다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 작중인물의 한 사람인 俳桃가 북한본에서 裴桃로 표기되어 있는 것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癸巳仲夏無言子權汝章’의 기록이다. 汝章은 물론 석주의 字이다. 無言子は 그의 別號인 듯 한데 문집이나 다른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것이지만은 老莊의 의미를 담고 있어 그렇게 自號했을 수도 있을 법하다.<sup>5)</sup> 癸巳年은 1593년으로 석주 25세 때이다. 「림채·권필문학선집」의 해설에 따르면 「주생전」은 「화몽집」이라는 전적 가운데 실려 있는 것으로 筆寫本 형태로 전하고 있다고 하였다.<sup>6)</sup> 이상의

3) 라철화 역, 림채·권필작품선(북한 조선문학예술동맹, 1963)

4) 文獻奎, 花史·周生傳·風大州傳(동문관, 1961) 여기서 문선규는 「주생전」이 張九經 교수의 소장필사본이라 밝히고 있다.

5) 「石州集」에 있는 다음의 시가 참고가 된다.

我本無心人 願得無言友 同遊無有鄉 共醉無味酒

有無不是無 無無更何有 爲問無是公 如此是無否 <夜坐醉甚走筆>

6) 라철화 역, 앞의 책, p.24

기록 역시 석주 當代의 文獻에 「주생전」의 소재나 작자 문제가 언급된 예가 없는 한 절대적인 것으로 확정짓기에는 주저되는 점이 없지 않으나, 지금까지의 諸家の 견해와 함께 종합해 볼 때 본 작품을 석주의 작이라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위의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작가의 확정은 물론, 여태까지 중요한 관심사였던 본 작품의 창작시기가 명쾌하게 밝혀진 셈이 된다.

「주생전」은 그 창작성 여부가 일찍부터 문제시 되어 왔다. 「주생전」은 석주가 松京滯在時 朝鮮授兵軍의 書記로 出戰한 주생을 驛館에서 만나 筆談으로 그 내력을 듣고 기록한 것이라 했기 때문이다.<sup>7)</sup> 여기에 대해 이 내용을 假托的 구성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실의 기록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sup>8)</sup> 그러나 비록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사건의 대부분은 석주의 창작적 산물로 보는 점에 있어서는 일치하고 있다.

내부이야기를 석주의 창작으로 보는 한에 있어서는 이 이야기의 사실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즉 모티프자체의 성격이 순정문학이 아니면서 작가의 허구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일정한 방향의 世界觀을 표방하고 있다면, 「주생전」의 구성은 그러한 의식의 叙事的 처리방식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본다.

當代에 있어서는 叙事的 自我를 통한 작가의 體制 外的 세계관을 직설하는 데에는 사회이념적, 문학전통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고 있다. 이런 한계에 대한 서사문학적 대응방식은 환상적, 신이적 모티프의 수용을 통한 상징화의 방법이었다. 따라서 「金鰲神話」나 「元生夢遊錄」 등이 환상성이나 몽유모티프를 통하여 작가의 주제의식을 상징화하려고 했다면, 「주생전」의 구성방식은 '전해 들은 이야기'라는 사건자체의 객관화를 통해서 구현해 낼려고 했던 점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주생전」의 구성방식은 서사문학적으로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고 있다. 그것은

7) 余適以事往于松京 遇生於驛館之中 語言不通 以書通情 生以余解文 待之甚厚 余詢其致病之由 愀然不答 是日有雨 乃與生張燈夜話

8) 대표적인 예로 金起東은 「최척전」과 같은 수법의 가락으로(韓國古典小說研究, 敎學研究社, 1983, p.183), 김일렬은 실제의 체험에서 얻은 소재를 재구성한 것으로(앞의 책, p.171) 이해하고 있다.

9) 鄭學城, 傳奇小說의 문제, (韓國文學研究入門, 黃湜江 等 編, 지식산업사, 1988) pp.254 ~256.

朝鮮中期를 전후해 형성된 傳記體의 虛構化 과정과 밀접한 영향관계 속에 놓인다. 이미 「柳淵傳」과 같은 傳記形式을 빌어 작가의 이념적 지향을 허구적 상상력에 실어넣려고 한 시도가 있었다.<sup>10)</sup> 즉 「주생전」은 인물의 전기에 작가의 창의를 개입시켜 허구화하려는 의도 위에, 이미 마련된 「금오신화」류의 낭만적 초월과 사회적 대응의식을 혼용시킨 결과로 볼 수 있다.<sup>11)</sup>

석주시대는 이러한 叙事的 技法이 관행으로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다. 神仙思想이 주된 모티프로 전개되는 「南宮先生傳」이라든가<sup>12)</sup>, 남녀의 애정과 佛敎思想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崔陟傳」에 수용된 동일구성<sup>13)</sup>을 통하여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단지 「雲英傳」은 이러한 가탁적 방법과 몽유록의 구성이라는 이중적 장치를 통하여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虎叱」의 가탁적 방법은 그 기법에 있어서는 「주생전」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서사문학의 史的 脈絡 속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환상적 모티프에 의한 구성방식과 가탁적 방법은 작가의 의도를 直說하지 않고 상징화할 수 있는 점에서 같다고 할지라도 그 내부이야기의 전개는 이미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금오신화」는 현실계와 초월계의 二元的, 對立的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가탁적 방법은 내부이야기의 전개를 통해 서사적 자아가 세계에 대응하는 양상을 다양하게 전개시킬 수 있다. 액자 내부의 이야기는 傳記體의 구성적 전개방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한 인물의 생애 내에서 경험하는 사건들을 제기적으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편 그러한 인물의 성격을 확일화하지 않고 액자 내부의 사건을 통하여 복합적으로 구현해 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주생전」은 유형론적으로 傳奇小說에 속한다. 傳奇小說은 원래 六朝時代에 유

- 10) 「柳淵傳」에 대해서는 李憲洪, 實事의 小說化-柳淵傳을 중심으로 (韓國古典小說의 照明, 亞細亞文化社, 1990)를 참조할 수 있다.
- 11) 가탁적 방법은 唐傳奇인 「會眞記」에서 이미 볼 수가 있다. 즉 「회진기」말미에는 ‘予嘗於朋會之中 往往及此意者 夫使知者不爲 爲之者不惑 貞元歲九月 執事李公垂宿於予婿安里第 語及於是 公垂卓然稱異 遂爲鶯鶯歌以傳之’라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그 서사문학적 의의는 역시 다르다고 보겠다.
- 12) 萬歷戊申秋 筠罷公州 家扶安 先生自古阜 步訪於旅邸 因以四經奧旨授之 且以遇師顛末詳言之如右
- 13) 余流寓南原之周浦 陟時來訪余 道其事如此 請記其顛末 無使溼滅 不獲已略舉其概

행했던 志怪類에 대하여 특별히 唐代小說을 지칭하는 장르명칭이다. 지괴류가 기이한 이야기를 단순히 채움하여 기록한 것이라면, 전기소설은 작가의 창의를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기소설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古鏡記」 「枕中記」 「南柯太守傳」과 같은 神仙道釋妖怪談이 중심이 되는 神怪類와, 「霍小玉傳」 「會真記」 등의 佳人才子の 艷情故事인 戀愛類, 그리고 「謝小娥傳」 「儉俠傳」과 같은 俠男俠女の 武勇談으로 나눌 수 있다.<sup>14)</sup>

「주생전」은 당 전기에 비한다면 가인재사의 염정류에 해당된다. 특히 「곽소옥전」, 「회진기」의 표현양식이나 인물구성과 다소 일치되는 점이 있다.<sup>15)</sup> 작품 내에서도 이 두 편의 당 전기를 작가가 읽고 의식했던 흔적이 보여<sup>16)</sup> 그 影響關係는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점은 한 편으로는 본 작품의 창작적 성격을 제고시키는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作品構成이나 主題意識에서는 「주생전」은 위 두 작품과 비교할 때 완전히 별개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주생전」에서는 주생의 애정편력이 사회적 모순에 대한 인식 위에 설정되어 있으나, 양 작품에서는 남주인공의 단순한 喜色취향에서 여주인공과 결연한다.<sup>17)</sup> 이러한 점은 오히려 「금오신화」나 「원생몽유록」에 나타난 叙事的自我의 性格化에 접맥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외 작품 내에서 그 등장인물을 통하여 언급되는 「剪燈神話」의 「翠翠傳」, 「剪燈餘話」의 「賈雲華還魂之記」 역시 창작시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따라서 작품창작의 동기가 실재인물에게 傳聞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그 소재화의 폭은 제한적이었을 것이며, 작품의 대개는 석주의 문학적 경험과 창의에서 형성된 것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석주의 「주생전」창작은 그의 독특한 文體意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석주는 시에 있어서 當代的 學唐的 文風에 편승하고 있는데, 산문문학 역시 當代的 산문

14) 郭箴一, 中國小說史(臺灣商務印書館, 中華民國 70) pp. 85~86.

15) 상세한 것은 金鉉龍, 韓中說話小說比較研究(一志社, 1976) pp. 301~306과 왕숙의 앞의 논문 참조

16) 「곽소옥전」의 수용을 볼 수 있는 대목으로는,

桃收淚改容曰 詩不云乎 女也不爽 士貳其行 郎君不見 李益霍小玉之事乎 郎君若不我 遐棄 願立盟辭

를 들 수 있고, 「회진기」의 수용은 본 장의 모두에서 본 작품말미의 會真記三十律 云云을 들 수 있다.

17) 「곽소옥전」에서는 ‘每自矜風調 思得佳偶 博求名妓 久而未諧’라 하였고, 「회진기」에서는 ‘余眞好色者 而適不我值’라 하였다.

문학적 경향인 古文運動과 그 전반적 추이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 같다. 고문운동은 魏晉, 南北朝를 거치면서 文飾에 치중한 미려한 변려문을 淫文破典으로 비판하고 夏, 殷, 周, 兩漢의 儒學的 道統에 입각해서 載道之器로서의 문학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고문운동의 대가는 韓愈, 柳宗元으로 특히 「巧者王承福傳」, 「毛穎傳」 같은 문학적 기교가 탁월한 작품에 도덕적 교훈이나 治理의 덕목을 실었다. 석주는 唐代 고문운동의 내용적 측면보다는 그 文體樣式에 흥미를 가졌던 듯 한데, 「郭索傳」 「酒肆丈人傳」은 그러한 의식 위에서 창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sup>18)</sup> 당전기는 비록 세부적 묘사에 있어서 변려문을 즐겨 썼지마는 이야기의 서술방식은 특히 고문운동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할 수 있다.<sup>19)</sup> 석주는 당대의 이러한 산문문학적 풍조와 그 문체적 양식에 대해 상당한 식민을 가졌을 것이며 또 이를 자신의 문학 속에 민감하게 수용하여 이를 실험적으로 활용한 작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문체적 양식은 차치하고라도 애정모티프를 문학에 끌어들이는 것은 석주의 발달한 정신세계에서 비롯된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것은 시의 소재를 다루는 태도에서도 찾을 수 있다. 朝廷의 失政을 거침없이 譏刺하는 풍자적 정신은 이미 알려진 것이지만 특히 여성에 대한 그의 곡진한 서정은 관습적 윤리관에 얽매이지 않는 자재자약한 그의 기질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내에 대한 애정어린 措辭<sup>20)</sup> 나 妓女를 소재로 한 시<sup>21)</sup> 등은 16세기 사림파 문원에서는 쉬 용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그와 교류했던 許筠의 파격적인 性情論的 翁변이 있었지만<sup>22)</sup> 그 역시 작품으로는 이를 표현해 내지 못했던 바, 그의 이러한 문학행위는 인간의 본연적 욕망을 당시의 서사문학적 관행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도로 발현해 보고자한 기본인식 위에서만이 가능한 것이었다.

18) 拙稿, 권필의 酒肆丈人傳 研究(어문학 52집, 1991) 참조

19) 臺灣 中華書局 編, 中國文學發達史, 中華民國 69, pp. 344~345.

20) 다음의 시를 들 수 있다.

睡起仍無事 開窗面小園 雨餘觀草生

林晚聽禽言 倩婦呼詩韻 教我進酒樽

牛羊各歸巷 吾亦閉柴門

〈醉後命室人呼韻〉

21) 기녀를 소재로 한 시로는 「嬋娟洞」 「躑雀妓」 「贈天香女伴」 「春江詞效竹枝歌」 「悼妓」 등이 있다.

22) 男女情欲天 分別倫紀成人之教也 不敢違天品之本性也

## 3. 構成的 展開樣相

「주생전」은 작중주인공인 주생이 겪은 사건들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엮어 놓은 것이다. 額子部를 제외한 각각의 의미단락을 보면 叙事的 自我的 비감어린 生의 좌절을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물론 그 좌절의 동기나 작품 내적인 무기는 차이가 나지마는 액자부의 悲劇의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그 서사적 역할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겠다. 본 항에서는 작품의 구성적 전개양상에 따른 구조적 특징을 작중인물의 心理的 變化過程과 조응시켜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周生은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여 능히 詩를 지을 수 있었으며, 太學에 들어가 공부할 때는 동료들의 추앙을 받았고 그래서 자부심도 대단한 자<sup>23)</sup>였다. 그러나 여러 차례 科擧에 응하였으나 거듭 실패하였다. 뛰어난 재능을 지녔다는 것에 당연히 합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連擧不第 하였음은 그 이유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 자체에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어지는 주생의 자탄<sup>24)</sup>은, 사회의 모순과 한 개인의 힘으로 개선불가능한 것이니 이를 스스로 포기하고자 하는 주생의 심리적 반응이다. 이러한 주생의 태도 속에서 두 가지 가능성을 전제할 수 있다. 하나는 현실을 개선시키거나 거기에 동화될 수 없는 自己限界에 매몰되어 비관적인 자탄에 빠지는 것이고, 하나는 목표자체를 수정하여 새로운 가치에 경도함으로써 처음의 挫折을 완전히 극복하는 경우이다. 前者는 여전히 처음 설정했던 목표에 미련을 두어 근본적인 단절을 이루지 못하고 의식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면, 後者는 자기실현의 방향을 새롭게 잡아가는 경우가 될 것이다.

주생이 家産을 정리하고 蜀州를 떠나 행하는 江湖遍歷과 商行爲는 전자에 가깝다. 상행위는 새로운 생활경험이지마는 그것이 주생에게 功名立身보다 관념상 위위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는 분만에 빠진 消極的 敗北主義의 自虐的인 행위 이상의 것이 될 수는 없다.

주생의 이러한 패배주의적 자학의 이면에는 士大夫文人으로서의 自己身分世界

23) 生少時聰銳能詩 年十八爲太學生 爲儕輩所推仰 生亦自負不淺

24) 人生世間 如微塵棲弱草耳 胡乃爲名疆所係 汨汨塵土中 以送吾生平



의 가치관이나 윤리의식과 같은 禮敎의 구속에서의 放任을 포함하고 있다. 문인으로서의 존재실현이 모순된 세계에 의해 차단당한 이상 그 세계의 慣習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주생의 의지적 방향이다. 상행위는 사대부 문인의 일상화된 생활이 아닌 것이고, 그럼으로 해서 이는 주생의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예고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주생의 이러한 방임은 俳桃를 만남으로 해서 男女間의 愛情關係로 귀결된다. 배도와의 결연은 처음의 좌절과 그로 인한 우분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처음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배도는 妓女의 신분 에 속해 있는 여성이다. 여기서 기녀인 배도를 사랑하게 됨으로써 제기될 수 있는 주생의 내면적 대응태도를 간과할 수 없다.

배도는 주생을 기녀라는 자신의 처지를 구제해 줄 수 있는 이해의 대상으로서 선택한다. 주생의 탁월한 시재를 보고 '不遇한 처지에 오래 머물러 있을것이 아니라'<sup>25)</sup> 응당 부귀와 영화를 누릴 가능성을 보고 주생에게 마음을 허락한다.

저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지금까지 남의 손에서 자라왔습니다. 비록 정절을 지키어 깨끗하게 살려고 하나 이름이 이미 妓籍에 올라 있어 부득이 남과 더불어 즐겼습니다. …바라건대 낭군께서 앞날에 입신하시어 벼슬길에 올라 쫓을 기적에서 빼내시어 조상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해 주신다면 그것만이 첩의 바램일 뿐입니다. 비록 뒤에 첩을 버리시어 돌아보지 않으신다 해도 그 은혜를 잊지 못할망정 어찌 원망이야 하오리까?

(妾早失父母 見養于人以于至今 雖欲守淨自潔 名已載於妓籍 不得已而強與人宴樂…望郎君他日立身 早登要路 拔妾於妓籍之中 使不忝先人之名 則賤妾之願畢矣 後雖棄妾 終身不見 感恩不暇 其敢怨乎)

배도의 이러한 요구에 주생은 '이는 사대대장부로서 마땅히 할 일이니 비록 그대가 말을 하지 않은들 내 어찌 그리 無情할 수 있겠는가?'<sup>26)</sup> 하고 대답한다. 이 대답은 배도의 마음을 끌기 위한 즉흥적인 應對일 수 있으나 양자 간 結緣의 성격을

25) 郎君爲才如此 非久屈於人者 何泛便飄蓬若此哉

26) 此男子分內事耳 汝縱不言 我豈無情者

말해주는 대목이다. 즉 주생과 배도는 상행위로 방임생활을 하고 있는 주생의 처지에서가 아니라, 기녀의 신분에서 있는 배도의 처지에서 결연을 맺은 것임을 보여준다.

기녀는 봉건세계의 질서 속에 있으면서 사대부에 의해 그 존재가치가 인정되는 인물이다. 따라서 기녀가 기녀로서 자신의 신분에서 속해 있는 한 그 상대역은 어디까지나 사대부일 따름이다. 만약 주생이 상행위와 같은 자기신분세계의 보편적인 삶의 양식에서 일탈한 심리태도를 지속시키고 있었다면 배도와의 결연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주생이 강호에 떠돌다가 배도의 미모와 시재를 보고 정착하려 했다는 것은 처음에 상행위를 통하여 방기하려 했던, 탁월한 문재를 지닌 사대부문인으로서의 자기신분으로 다시 복귀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경우 양자간 애정의 성격은 永續적인 애정관계가 아닌 기녀와 사대부문인간에 맺어진 一時的이고 契約적인 관계가 된다. 궁극적으로는 배도와의 결연을 가능하게 했고, 또 배도 스스로도 원했던 주생의 이러한 자기신분으로서의 회복이 역설적으로 배도 자신을 불행으로 몰고 가게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은 仙花의 등장이다.

배도와의 관계가 한 때의 정신적 안일을 제공하는 계약관계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것이었다면 선화와의 결연은 영속적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것이다. 더구나 失門甲第로 구름에 연한 듯 솟아 있는 宰相宅의 화려함과 배도에 비해 월등한 선화의 才色<sup>27)</sup>은, 촉주를 떠난 후 겪게 된 유랑의 삶과 일시적인 안일을 청산하고 사대부로서의 자기신분세계 내에서 안정되고 영속적인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주생의 욕망을 일깨우는 것이었다.

배도와는 달리 선화와의 결연은 두 가지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었다. 하나는 規範을 초월하는 越牆의 방법이고, 하나는 典敎의 禮法대로 婚媒를 내세워 취하는 방법이다.

주생은 비록 배도와의 결연을 통해 자기신분에의 회귀의지가 발동했다 하더라도 그 세계의 규범에 완전히 동화된 것은 아니었다. 사대부신분으로서의 자기확인으로서 그 세계 내의 제도적 규범에 순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주생에 있어서는 그 動機가 애정이라는 脫規範의 方法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처음의 방임적

27) 桃坐于其間 不啻若鴉鵲之於鳳凰 砂礫之於珠璣也

정신은 지속되고 있었다고 보겠다. 선화의 집은 중세의 질서가 지배하는 곳이지만 주생의 이런 방임정신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越牆이라는 수단을 동원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주생의 방임적 행위는 선화가 지니고 있는 宰相家閨女로서의 신분적 속성으로 해서 난관에 직면한다. 처음 주생의 求愛에 충동적으로 응했던 선화는 월장을 통한 은밀한 방식의 애정행위의 영속성에 회의를 표명하고 있다.

여자의 몸은 근심과 함께 살아 갑니다. 만나지 못하면 서로 만나기를 원하고, 만난 후에는 헤어질까 근심합니다. 여자가 근심 없이 어찌 편히 지낼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낭군께서는 閨中女人을 犯했다는 기롱을 받게되고 저는 정절을 지키지 못한 恥辱을 얻게 되어 만약 하루 아침에 불행히 그 자취가 드러나면 친척에게 용납되지 못할 것이고 마을사람들에게 천대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 낭군과 손을 맞잡고 함께 살아 갈 수 있겠습니까?

(女子之身與愁俱生 未相見 願相見 既相見 恐相離 女子一身安住而無愁哉 況郎犯折權之譏 接受行露之辱 一朝不幸 情跡敗露 則不容於親戚 見賤於鄉黨 雖欲與郎執手諧老 那可得乎)

선화가 행동으로 자신의 세계 밖으로 이탈해 오지 않는 이상 서로의 애정은 지속될 수 없다. 월장행위에 대한 선화의 이러한 우려에 주생은 ‘丈夫가 어찌 한 여자를 취하지 못하겠는가. 내 마땅히 媒約의 절차를 밟아 예대로 그대를 맞이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오’<sup>28)</sup> 하고 대답한다. 이 대답에서 주생은 바야흐로 자신의 脫規範적 放任을 청산하고 자기신분에 부여된 규범에 순응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즉 배도와 선화와의 결연이 일시적이거나 주생의 윤리적 이탈과 방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양자와의 궁극적인 행복을 위해서는 다시 자신의 신분세계의 논리로 복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단지 그러한 복귀가 기녀인 배도와는 신분적으로 더 멀어지게 함으로써 불행을 초래하게 되었다면 선화와는 행복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주생의 자기신분에의 복귀는 궁극적으로 母族 張老人에 의한 仲媒로 해서 선화와의 행복한 결말을 마련한다. 그러나 주생의 朝鮮出兵은 또 하나의 비극으로 대두된다. 戰亂은 不可抗力的인 세계의 황포이지만은 서사적 자아의 대응양식에 따

28) 丈夫豈不取一女乎 我當終修媒約之信 以禮迎子 子休煩惱

라 그 서사적 의미는 달라진다. 주생은 이미 마련된 선화와의 행복한 미래를 적극적으로 지킬려는 의도도 보이지 않은 채 '숙명으로 받아들일 만큼 순순히 응<sup>29)</sup> 함'으로써 다시 선화와 기약없이 이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발생은 주생이 連舉不第함으로써 규범세계의 지배에서 벗어날려고 했던 시기와는 그 심리적 대응의 자세가 변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典敎의 禮대로 媒婚을 통해 사대부신분으로서 宰相家閨女를 취한다는 것은 이미 처음 모순을 겪었던 사회의 질서에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미 봉건세계의 삶의 논리에 순응한 이상, 文筆의 才能을 요구하는 국가적 요청에 강하게 응대할 명분을 상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작품의 구성을 통한 주생의 심리적 변화과정을 다음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봉건적 지배질서를 초극하려는 시도의 단계이다. 이 초극은 功名의 추구라는 욕망의 포기과 함께 자신의 신분 및 그 신분에 주어진 윤리적, 제도적 拘束에서의 放任을 의미한다.

둘째는 자기신분적 위치의 확인이다. 배도를 통하여 그 단초가 마련되자 선화와의 결연으로 사대부문인으로서의 신분적 위치로 돌아서게 된다. 그러나 일탈적 방임정신은 아직 지속되고 있는 단계이다.

세째는 자기신분세계의 규범에 순응하는 단계이다. 張老人을 의한 매혼의 절차를 통해 그것이 사실상 실현된다.

네째는 조선원병군의 서기로 출전함으로써 해서 공명의 추구라는 자기신분 세계의 실현방식에게까지 복귀할 수 있다는 전제가 가능한 단계이다.

위에서 보듯이 「주생전」은 일종의 반복적 효과를 지닌 역설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인공의 放任的 逸脫意識이 강화되면 될수록 여기에 규범세계의 통제와 간섭도 강화된다. 상행위-배도와와의 결연-선화와의 결연과정은 방임의 上昇構造라 할 수 있다. 상행위는 사대부적 신분세계의 생활환경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윤리상의 저항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후의 애정행위보다 일탈적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에 비해 배도와와의 결연은 상행위보다 그 방임적 성격이 더 강하다. 그러나 기녀라는 배도의 신분이 갖는 속성때문에 선화와의 결연보다는 덜한 셈이다. 이와 같은 주생의 방임적 일탈의지의 상승에 비례해서

29) 김재수, 周生傳 研究-徐述方法을 중심으로-(韓國言語文學 V. 21, 韓國言語文學會, 1982) p. 24.

자기신분의 복귀요구-규범의 요구-문필적 재능의 요구라는 봉건세계의 개입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주생전」의 구성은 자아의 의지적 지향과 봉건세계의 규범적 통제를 짐승적으로 보여주면서, 여기에 대응하는 주생의 심리적 대응양상을 의미있게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인공의 의지가 장애를 겪을 때 그것의 해결방식은 중세적 규범세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규범세계에 대한 심리적 의존과 순응으로 해서 획득될 수 있으리라 여겼던 행복이 역설적으로 다시 그 세계의 논리적 귀결로 불행이 조장된다는 의미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결말부의 未終結式 구성은 이와 같은 주인공의 불행을 반복적이고 순환적으로 제시하는 효과를 지닌다. 주인공이 자신의 지향의지를, 세계의 간섭을 타개하고 극복해 가는 방향에서 성취해 내지 못하고 여기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주제의식의 약화를 초래하여 기본적으로 본 작품의 비극성을 저해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 4. 悲劇的 性格

小説의 본질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美學的 基調를 해명하는 일은, 인간의 實存的 삶의 양식이 소설구조 속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해명해 주는 열쇠가 된다. 「주생전」의 작품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주로 그 비극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남녀 간의 애정관계가 행복한 결말을 맺지 못하고 한 편으로는 상대방의 죽음으로, 한 편으로는 戰亂에 의한 기약없는 이별로 불행하게 전개된다는 점이 그러한 해석의 단초를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蘇在英 교수는 「주생전」을 「금오신화」와 「운영전」의 비극성과 동일선상에서 논하면서,

周生과 仙花의 비극을 戰亂으로 부각시킨 점은 斬新美가 있다. 愛情의 三角關係를 비극적 결구법으로 處理한 作者의 意識과 自身의 運命적 비극을 낭만적 소설 속에 카타르시스할 줄 안 작자의 재능 앞에 再三 三嘆을 금할 수 없게 한다. 周生傳은 결코 비극을 낳지 못한 통속작품이 아니다. 민중의 所望的 思考의 울타리를 용감

30) 蘇在英, 古小説通論(二友出版社, 1989) p. 164.

하게 뛰어넘은 위대한 비극이다.<sup>30)</sup>

라고 하여 작자의 불우한 운명을 주인공으로 재생시킨 비극의 원형이라고 하였다.

金起東 教授 역시 人鬼交歡이라는 幻夢的인 남녀 간의 애정문제로 일관했던 「금오신화」에 비하면, 「주생전」의 애정관계는 본격적인 절박한 현실문제로 대두되어, 사랑때문에 죽지 않으면 안되는 한 여성의 비극을 표현해 놓고 있다고 하였다.

31)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이후 여러 논자들에 의해서 부정적인 시각에서 수용되었다. 鄭學城 教授는 傳奇小說의 유형적 성격에 대해 논하면서, 「주생전」에서는 「금오신화」의 전기소설적 유형성이나 예술적 효과를 찾아볼 수 없고, 따라서 사회의 모순과 질곡에 대결하려는 비극적 사랑의 고뇌나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하였다.<sup>32)</sup> 이런 해석방향은 김재수와 이채연에 의해 다시 확인되고 있다.<sup>33)</sup>

위와 같은 견해는 몇가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주생전」에는 애정의 문제와 관련되어 중세적 윤리관을 극복하려는 작중인물의 의지와, 이를 거부하는 관습이나 제도 사이의 대립에서 빚어지는 비극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作家의 주제의식이 애정에 대한 사회윤리적 한계를 극복하려는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갈등관계가 작품의 사건전개를 통해서 단편적으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悲劇의 情況을 발생시키는 전체적인 문제의식으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애정문제가 작품 내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으나 앞의 작품 구성에서도 보았듯이 作中主人公이 경험하는 삶의 일부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작품에 대해서, 어정을 성취하고자 하는 개인의 운명과 투쟁을 중심으로 한 몰락과 정에서 비극성 여부를 논의하고자 했다면 작품의 본질을 충분히 파악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해석태도는 중세봉건적 윤리관으로 해서 남녀간의 자유스런

31) 金起東, 韓國古典小說研究(教學研究社, 1983) p. 186.

32) 鄭學城, 앞의 책, p. 257.

33) 김재수, 앞의 책, 같은 곳. 이채연, 주생전의 구조와 의미(국어국문학 제26집,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9) p. 118.

김재수는 본 작품의 결말구조가 비극적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랑과 행복을 짓밟는 국가적 대의명분을 생명을 걸고 맞서는 처절한 투쟁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채연 역시 「주생전」의 불행한 결말이 표면적으로 종결형태가 유사한 비극적 결말과 동일한 세계관을 표방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전제하고, 결론적으로 본 작품은 비극적 세계관을 형성하지 못하고 좌절된 생의 방황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애정표현이 차단되었던 朝鮮朝 社會의 작품 외적 상황을 도식적으로 적용한 결과로서, 본 작품을 비극으로 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점이다.

金一烈 教授의 견해는 이런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즉, 「주생전」에 드러난 비극적 정조는, 孤獨한 例外者인 미약한 개인은 세계와의 불가피한 대결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운명의 포로가 되어 소멸될 것이라는 인식 위에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sup>34)</sup> 작품의 비극성을 단일 모티프를 통하여 해명하려 하지 않고 주인공의 행동양식을 통하여 파악하려 한 점에서 적의한 입론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서사적 자아의 운명적 좌절을 겪게 한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감으로 지적된다.

〈주생전〉의 비극적 구조는 단순하지가 않다. 이것은 본 작품의 비극성을 작중인물의 행동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작품구조의 有機的 관계 속에서 사회적 의미나 작품의 결말구조만에 집착한다면 본 작품에 흐르는 비극적 정조를 놓칠 수 있다. 우리 소설에서 〈洪吉童傳〉이나 〈沈淸傳〉과 같이 종결부의 善終을 포함하는 작품에서도 그 비극적 성격은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생전〉에서 특기할 것은 敍事的 自我와 世界의 관계가 소설 내에서 對立的, 二元的 構造구조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주생전〉에서는 세계와의 투쟁이 서사적 자아의 내부에서 일어나며 그것은 심리적 혼돈으로 표현되어 있다. 기존의 논의에서 본 작품이 비극적 세계관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서사적 자아의 행동성이 갖는 이러한 성격에 기인한다. 그러나 비극은 사회적인 환경과 개인의 의지적 志向 사이에서의 투쟁과 대립으로 제기되어 불행한 결말로 이어지는 고전적 개념의 상황비극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함께 운명 속의 한 개인이 지닐 수밖에 없는 性格의 缺陷에 의한 비극적 상황 역시 恐怖와 憐憫의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sup>35)</sup> 즉 비극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悲劇的 缺點(tragic flaw)에서 일어나며, 그것은 세계에 대응하는 비극적 주인공의 행동 양식이 갖는 성격적 결함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주생전〉의 주생이 지닌 성격적 결함은 비록 사회적 모순을 절감하고 거기에서

34) 金一烈, 앞의 책, p. p. 14~15

35) C. Brooks & Heilman, Understanding Drama. (New York, 1965) Glossary

일탈하려고 했지마는 중세의 규범과 윤리에 順應하고 마는 데 있다. 세계에의 순응은 그 자체로 終結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모순에 循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不幸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았다. 이러한 주생의 성격적 결함은 한 개인의 인격상의 결함이나 지향의지의 幼弱성과 같은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주생의 심리적 변화과정으로 표현되는 규범세계에의 순응과 그로 인한 불행과 결과들이 부조리한 세계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 밖에 없는 不可避한 것이라면 이것은 바로 비극을 생산하는 동기로 해석될 수가 있을 것이다.

비극은 英雄的인 人物들과 그들의 영웅적 행위를 의미있게 제시하는 세계를 제시해 준다고 하였다.<sup>36)</sup> <주생전>에 제시된 세계는 한 개인의 지향의지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간섭하며 적극적으로 그 사회의 세계에 묶어두려는 속성을 갖는다. 이것은 어느 한 방향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대부로서의 공명인심이라는 자기실현의 방식과, 이를 극복하고 애정과 같은 방임적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일탈욕구의 두 방향에서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세계의 간섭이 어느 한 쪽의 실현가능성도 용납져 않고 작용한다는 것은 세계 내의 한 개인으로서 비극적 주인공이 겪을 수밖에 없는 비극적 불가피성(inevitability)을 말하는 것이다.

주생의 결연과정에서 제시된 세계는 두 여성의 성격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배도와 선화는 일면 주생과의 결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신분상의 위치에 있거나 의식상의 발달성을 소유한 인물이다. 그러나 이들은 그 세계의 지배논리에서 스스로 탈출할 수 없는 한계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 한계는 세계의 속성이기도 한 것으로 소설 내에서도 여하히 파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주생이 지닌 비극적 결점은 윤리적 통제를 스스로 제거시킬 수 없는 두 여성과 결연을 맺은 그 자체에 있다고 할 수 있다.<sup>37)</sup> 배도와 선화의 성격이 固定不變의 것으로 극복될 수 없는 것이라면 주생이 애정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시키려 하는 한, 그의 가치관 지향의 이중성은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이중성 자체가 불가피한 것이라면 종결부에 보이는 선화와의 이별 역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주생이 선화와의 애정을 지속시키지 못하고 조선원병군의 서기로 출전하게 되는 것이 주생

36) Robert Scholes, 문학의 구조주의, 위미숙 역(새문사, 1987) p. 141

37) 비극적 결점은 고의적인 범죄나 죄악과 동일시 될 수 없는 실수(mistake)에서 처음 연유한다고 하였다. 金允植 編著, 文學批評用語辭典(一志社, 1976) p. 99



의 의지적 유약성의 차원에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겪을 수 밖에 없는 한 개인의 운명적 파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주생이 배도에게서 마음이 옮겨가는 상황설정은 윤리적 차원 위에서 전개되지 않는다. 비극적 상황이라기 보다는 주인공의 여성편력과 성유희로 해석될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작품의 비극은 반드시 윤리적 토대 위에서 전개될 필요는 없다.

비극은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주인공의 행위의 因果關係를 맺고 있기는 하지마는, 그 비극성은 주인공의 행위의 귀결이 지나는 불가피성에 있는 것이지, 주인공의 행위가 지나는 도덕적 정당성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sup>38)</sup>

주생의 가치관적 지향은 사실상 윤리상의 문제를 제기할 만큼 혼돈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 결과 배도를 죽음에까지 몰고가고 있다. 배도의 죽음은 표면적으로는 애정의 상실로 인한 불행의 결과이지만, 그 비극의 의미는 여기에 있지 않다. 그것은 주생에 대한 기대감 즉, 기녀로서의 삶을 일신하고 신분적 개선을 꾀하려했던 희망의 좌절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배도의 죽음은 비극적 주인공의 성격적 결함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상황으로 이것은 선화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그러나 배도와 선화는 비극적 주인공이 아닌 것이고, 따라서 이들의 죽음과 失變은 주인공의 성격적 결함을 결정적으로 造成시키는 요인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러면 본 작품의 비극적 정황의 발생이 중세적 지배질서에 의해 지배될 수밖에 없는 사대부문인의 성격적 결함에 있다면 이를 통해서 발생하는 비극적 효과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작품의 구성에 따라 작중인물의 행동성에 의미를 부여하는 空間背景을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에서는 空間의 移動을 통하여 서사적 자아의 자기실현의 고장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앞 장에서 본 구성에 따른 의미단락은 사건의 배경인 축주-전당호 주-조선과 대응되고 있다. 의미상의 편차에 따라 공간이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공간자체의 상징적 의미까지도 고려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즉, 〈주생전〉에 설정된 공간은 사건진행에 寫實性을 부여한 自然的 공간으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

38) Northrop Frye, *Anatomy of Criticism* (Princeton University, 1971) p. 38

나라, 의미를 구현하는 상황적 배경으로 제시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

展開部の 작품배경인 蜀州는 중세의 가치가 지배하는 현장으로서 功名の 추구라는 사대부문인으로서의 자기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다. 누대 錢塘에 거하였으나 주생의 父親이 蜀州別駕라는 벼슬을 지내게 된 後부터 촉주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sup>39)</sup>에서 촉주라는 배경이 갖는 소설공간으로서의 함축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즉 촉주는 모순된 현실과 等式化되어 있는 공간이다.

이에 비해 전당은 낭만적 초월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촉주라는 현실에서 벗어나 애정을 통해 자기실현이 가능한 공간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애정의 추구가 촉주에서 전개되지 않고 전당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 촉주 내에서 다시 애정이 이루어 진다는 것은 공명의 추구라는 문제 이상으로 심각한 저항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당에서의 결연은 촉주라는 현실을 초월하는 可視的 효과를 나타내 보일 수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애정과 사회적 윤리라는 것 사이에서 빚어지는 갈등관계가 소설적 문제의식의 범주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약화를 가져오지마는 그 문제의식이 애정에만 걸려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당이 배도와외의 결연을 통하여 가치관적 정착을 가져올 수 있게 하였다면 그것은 전당이 주생에게 있어서 終局的 공간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전당은 주생의 고향임으로 해서 인간의 회귀본능을 자극할만 하다. 가치탐색기의 江湖는 잠시 머물러가는 經過的 공간에 불과하다. 경과적 공간에서는 여전히 客愁를 느낄 수밖에 없지마는 중국적 공간에서는 그럴 까닭이 없다. 촉주 역시 주생이 그 세계에 동화되어 의식적 정착을 꾀하지 못하는 한에 있어서는 여전히 경과적 공간의 의미 밖에 지니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주생이 낭만적 초월을 도달하려 했던 중국적 공간으로서의 전당은 많은 약점을 지니고 있다. 즉 전당은 무욕무위의 선선경이 아니라 배도와외의 애정으로 着色된 주생의 의식 속에 假設된 공간이다. 전당이 주생의 고향이지마는 '옛 벗은 이미 찾을 수도 없는'<sup>40)</sup> 곳으로서 주생의 의식을 묶어 들만한 의미를 상실한, 그래서 배도를 통해서만이 중국적 공간으로서의 의의를 부여받는 곳일 따름이다. 주생이 배도를 좇아 華麗한 선화의 집에 이르렀을 때 이미 전당은 다시 경과적 공간으

39) 父爲蜀州別駕 乃家于蜀

40) 登岸訪古里親舊 半已凋喪

로 인식되고 객수는 되살아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sup>41)</sup>

國英과 배도의 죽음은 초월공간으로 자신의 객수를 씻으려 했던 선화의 집에 이르는 물리적 통로마저 차단당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주생은 다시 경과적 공간 속을 떠다니는 나그네의 처지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다시 옛 노를 저어 왔던 길로 돌아가려 하나 호해는 넓고 천지는 험준하다. 외로운 배를 저어 어디에 의지할꼬 (復理舊楫 再就來程 湖海闊遠 乾坤嶄榮 孤帆萬里 去去何依)

배도의 죽음 앞에서의 주생의 이와 같은 탄식은 촉주라는 세계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전당으로 돌아가는 길마저 막힌, 그말로 정착할 곳 없이 표류하는 처지를 극명하게 보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생전〉에 흐르는 비극적 정조는, 비극적 주인공이 규범과 윤리가 지배하는 사회공간에도, 또 이를 초극한 애정으로 표현되는 초월공간에도 용납되지 못하고 부평초와 같이 경과적 공간 속을 떠돌 수 밖에 없다는 존재론적 인식 위에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비극적 정황을 일키는 요인은 탁월한 재능을 지닌 文士가 모순된 세계에서 제기된 문제를 그 세계 내에서 해결하려 할 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성격적 결함임을 보았다. 이와 같이 〈주생전〉은 비극적 諸要素를 통하여 그 효과극대화시킨 탁월한 비극임에 틀림이 없다고 보겠다.

## 5. 作家的 삶과 小說의 投射

〈주생전〉은 남녀의 愛情이 作品의 주된 모티프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애정이라는 소재가 사대부문인인 작가의 보편적 생활주변과 유리됨으로써 작품해석의 일차적 난점으로 부각되어 왔다. 기존의 연구가 〈주생전〉을 통해 석주 개인의 의식 세계를 적의하게 추론해 내지 못했던 것은 여기에 연유하고 있다. 석주의 曠達不羈한 생애의 연장선상에서 애정모티프의 수용가능성만을 문제삼는 것은 역시 작품

41) 주생이 선화의 집 앞에서 읊은 다음의 시를 통해서 볼 수 있다.

柳外平湖湖上樓 失愛碧瓦照青春 香風吹送笑語聲  
隔花不見樓中人 却羨花間雙燕子 任情飛入失簾裏  
徘徊未忍踏歸路 落照纖波添客愁

의 의미를 단순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나 <주생전>은 석주의 創意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고, 그것은 작가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구현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보아 왔듯이 본 작품의 미학적 기초는 비극에 있고, 그 비극적 情調를 뒷받침하는 것은 모순된 세계에 투척된 한 개인의 漂流意識이다. 석주에게 있어서의 이 표류의식은 사회적 모순 속에 처한 자신의 존재인식의 기틀이며 시문학의 정서적 滋養이 되고 있다.

兵戈今未定 전쟁은 지금도 그치지 않으니  
 世路幾時平 세상길은 어느 때 평정되겠는가  
 江上三年客 강가로 삼년을 떠돈 객은  
 天涯十日程 하늘 끝 열흘 길에 오른다.  
 荒村依古木 황량한 촌락엔 마른 나무 비껴 있고  
 畫角隱空城 피리소리 빈성에서 가만히 들리네  
 夜入田家宿 밤에 농부의 집에서 자니  
 悠悠愧此生 하염없이 이 삶을 부끄러워 한다.

〈旅宿〉<sup>42)</sup>

위의 시는 戰亂 중에 쓰여진 것으로 <주생전>의 창작시기에서 그렇게 멀지 않다. 석주의 20대는 사회에 대한 철저한 모순인식과, 전란으로 표박, 유리되는 상황 속에서 자기존재의 무력감을 절감했던 때였다. 석주의 이런 무력감은 물리적 상황 뿐만 아니라 의식적 차원에서도 비롯되고 있었다. 江華 등지로 피난했었던 물리적 이탈과 함께 一字課書로 出榜당한 후 겪었던 사회적 고립감은 석주의 표류의식을 조성시킨 것들이었다.

석주의 이러한 표류의식은 故鄉에 대한 그리움과 歸鄉의 정서로 나타나고 있다. 석주에게 있어서 고향은 자신의 표류하던 의식을 정착시킬 수 있는 정신적 歸宿處였던 셈이다.

異鄉寥落寡朋儔 타향이 적막하니 친구가 적고  
 客夢遙尋漢北州 나그네는 꿈 속 멀리 한강북쪽 찾아드네

42) 〈石洲集〉 卷之三 p. 108(面數는 昨晟社 影印本에 의한, 이하 같음)

萬事只知歸去好 단사에 단지 돌아 갈 것 좋으니  
 七年空賦伴年愁 7년 동안 공연히 시름의 노래하도다.  
 地連故國山園野 땅은 고향에 이었으나 산이 들을 들렀고  
 門對寒江浪沒洲 문 앞에는 차가운 강물이 모래톱에 질펀하네.  
 幾回悵悵桂花秋 몇 번이나 계수꽃 피는 가을을 슬퍼했던가  
 〈述懷示五山三首 中 其一〉<sup>43)</sup>

그러나 석주의 고향은 현실적 이해가 분분한 京城에 위치하고 있었다. 석주에게 고향은 한 편으로 客愁를 씻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였지만은 한 편으로는 모순된 세계 그 자체이기도 한 셈이다. 즉 경성은 부패한 官吏들이 권세를 뽐내며 횡행하는 곳이었으며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았던 정쟁의 현장이었다.

저는 성격이 疎誕하여 時俗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매번 失門甲第를 지날 때에는 반드시 침을 뱉고 지나가고 궁벽진 곳의 오두막을 보면 반드시 머뭇거리며 돌아보고는 팔을 베고 물마시어 그 즐거움을 바꾸지 않는 자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매양 화려한 관직에서 세상사람들이 현자라고 일컫는 사람을 만나면 종놈과 같이 비루하게 여기고, 任俠屠狗者로 鄉里에서 천대받는 자를 보면 반드시 기꺼이 그를 따라 놀며 말하기를 '슬픈 노래로 慷慨하는 자를 보기를 바랐노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하계 보이는 까닭이지마는 저 역시 그것이 무슨 다음인지 스스로 알 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세상과 더불어 俯仰하고 싶지 않아 장차 산야에 물러나 收心養性하여 옛 사람이 道라고 한 것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僕受性疏誕 與俗寡諧 每遇失門甲第 則必唾而過之 而見陋巷蓬室 則必徘徊眷顧 以想見曲肱飲水而不改其樂者 每遇紆青拖紫 舉世以爲賢者 則鄙之如奴虜 而見任俠屠狗者 爲鄉里所賤者 以欣然願從之遊 巨庶幾得見悲歌慷慨者乎 此僕之所以見怪於流俗 而僕亦不能自知其何心也 以此不欲與世俯仰 思將退伏山野收心養性 以求古人所爲道者)<sup>44)</sup>

경성의 이런 형국은 석주로 하여금 비록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다시 연연하게 할지언정, 여기서 떠나 江湖의 客이 되든가 海村寓居에 退伏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한 실상이었다. 그래서 山谷에 들면 고향에 가고 싶고, 고향에 오면 다시

43) 〈石洲集〉 卷之四 p. 172

44) 〈石洲別集〉 答宋弘甫書 p. 433

산곡에 들고 싶은 自己撞着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석주의 고향은 작품에서 蜀州와 錢塘의 공간적 상징성이 혼착되어 있다. 그러면 서 석주의 客地 역시 전당으로 표현되는 의식적 귀착의 의미와 전당 외의 공간에서 느껴지는 객수의 정감을 함께 지니고 있다. 작품에서 축주와 전당이 서로 상이한 상징성 의미를 지니면서 각각 독립된 공간으로 설정된 것은 석주가 자신의 고향에서 느꼈던 이런 복합적 의식이 소설적 공간구조를 통하여 정리되어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작품의 전반부에서 제시된 서사적 자아의 사회적 모순인식이 석주가 갖는 사회관의 소설적 의미화라고 한다면 다음 말미의 서술자의 발언은 어떻게 해석될 수가 있는가?

丈夫가 염려할 것은 功名을 이루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천하에 어찌 美人이 없겠습니까. 하물며 이제는 삼한이 평정되고 군대들이 돌아갈려고 하니 동풍은 周郎의 편에서 불 것입니다. 어찌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갔겠습니까.

(丈夫所憂者 功名未就耳 天下豈無美婦人乎 況今三韓已定 六師將還 東風已與周郎便矣 莫慮喬氏之鎖於他人之院也)<sup>45)</sup>

공명을 성취하는 것이 男兒의 본연의 일인데 한 여자에 얽매어 고심할 필요가 없다는 위로의 말이다. 서사적 자아가 겪었던 공명추구라는 현실적 욕망이 다시 서술자에 의하여 긍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괴리는 반드시 서사적 자아와 서사 외적 자아인 서술자의 시각의 차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서사적 자아와 서사 외적 자아인 세계관적 차이가 서사 외적 자아인 작가 자신이 지니는 세계관적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모순은 앞에서 보아왔듯이 作品 내에서는 서사적 자아의 심리적 이중성으로 성격화되고 있다.

.....

我亦落拓者 나 역시 불우한 자  
半世秋風候 반평생 먼지바람 좇고  
欲進濟詩策 세상구할 책략 펼치려 했으나

45) 라철화, 앞의 책, p. 359

46) 〈石洲集〉卷之一 p. 32

天門何崔嵬 조정의 문은 어지 그리 높던가  
 茫然撫疇昔 아득히 옛일을 생각하니  
 壯志中道催 장대한 뜻은 중도에 꺾기고  
 托迹屠市中 저자에 몸을 맡겼으니  
 燕歌空自哀 즐거운 노래소리 공연히 슬퍼도다  
 三花若未落 삼화가 아직 지지 않았다면  
 與子歸去來 그대와 함께 전원으로 돌아가  
 雙騎紫麟去 자란을 함께 타고서  
 浩蕩遊蓬萊 호탕히 봉래에서 놀아나 보세  
 〈贈林子定〉<sup>46</sup>

회고의 뜻이 담긴 사이기는 하나 젊을 때 가졌을 濟世의 壯志를 짐작할 수 있다. 즉 부유들이 전횡하는 정치현실에 대한 통매로 일관했던 그의 시정신 속에는 자신의 이상을 펼쳐보고자 하는 의지의 일단도 깃들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그러한 기개가 통용될 수 없다는 현실적 인식도 함께 가졌던 터라 이를 아예 벗어나려는 충동 역시 동일한 무게로 석주의 의식을 점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즉 25세의 기개발달했던 석주는 자신의 존재실현의 가능성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겠다. 그러나 그 雄志와는 별도로 실제로는 布衣의 窮寒에 매여 있었던 만큼 자기존재에 대한 인식의 시각이 긍정적일 수 없었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주생이 지닌, 낭만세계에의 추구하고 공명의 실현이라는 현실적 욕구의 성격적 이중성은 석주의 정신 속에 이미 자리잡고 있는 것이었다. 이것이 주생이라는 허구적 인물에 투영되어 자기신분세계의 질고에 매여 비극적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성격적 모순으로 구현되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주생전〉은 석주의 자기존재에 대한 인식태도가 허구적 장치를 통하여 충분히 구현되고 있는 작품임을 알 수 있다.

## 6. 葛藤構造의 寫實性和 史的 意義

〈주생전〉은 한 人物의 傳記의 기술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탁월한 修飾的 技巧에 의해 그 주제적 방향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한 수식적 탁월성은 작중인물 간의

葛藤樣相과 性格描寫에서의 리얼리티를 제고시키는 방향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인물이 벌이는 갈등과 그 심리적 반응이 세부적으로 묘사됨으로써 본 작품이 既往의 논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대소설과 같은 문제의식을 지니게 하였다.

〈주생전〉에서는 남녀 간의 애정문제가 주된 모티프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주인공과 관련된 작중인물의 성격이 구체화되어 드러나는 곳은 이 부분에 국한되어 있다. 그런데 이 애정갈등은 우리의 서사문학적 전통에서 볼 때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구한다.

우리 소설의 경우 한 작품에서 둘 이상의 女性은 대개 善惡으로 대립되어 있거나 아니면 同調關係로 설정되어 있다. 선악으로 대립되어 있는 경우는 爭寵型 家庭小說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고, 동조와 보완관계는 〈九雲夢〉이나 기타 愛情小說에 수용된 것들이다. 그러나 〈주생전〉에서는 肯定的 性格(protagonist)의 두 여주인공이 한 남성에게 대해 애정을 독점하려는 의미의 갈등관계로 설정되어 있다. 이 갈등 관계는 앞에서 보아 왔듯이 두 여성이 처한 신분상의 차이에 바탕을 두고 있다.

둘 이상의 여성이 애정모티프에 수용된 것은 〈주생전〉에서 처음 볼 수 있다. 따라서 작가는 이들의 敘事的 처리에 고심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두 여성 사이의 애정관계를 문제삼은 소설적 관행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가의 창의적 개성에 의해서 시도적이고 실험적으로 성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러한 사실은 套式的 慣行的으로 사회적 이념으로 분식시켜 여성의 성격을 처리했던 〈구운몽〉이후의 소설과는 달리, 오히려 사회적 事實을 소설적 진실을 통하여 寫實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史的 위치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생전〉에서 남주인공을 사이에 두고 벌이는 두 여성 사이의 갈등은 심각하다. 상대방이 자신 외에 다른 여성과 관계하고 있다는 데서 일어나는 여성의 妬心이다. 주지하다시피 여성의 투심은 조선조 사회에서 용이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후대소설에서 적대적 인물(antagonist)의 부정적 이미지형성에 동원되었으나 선화와 배도는 물론 적대적 인물은 아니다. 남녀 간의 애정관계가 존재하는 한 투심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후 소설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윤리라는 작품 외적 환경이 그 성격을 지배한 결과이다. 〈謝氏南征記〉의 謝氏처럼 喬氏를 맞아들일 때 적극 성원하고 독려하는 것은 사회 윤리적 지향방향이 것인지 그것이 인간의 본질적 性情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妓女인 배도의 처리방향이다. 〈금오신화〉에서의 남녀 간의 애정은 일대일의 관계로 전개된다. 상대역인 여주인공은 비록 魂魄일 경우라도 兩班家閨秀로 표현되어 있다. 唐傳奇는 물론 〈剪燈新話〉에서도 기녀와 文才士간에 이루어지는 결연은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금오신화〉에서 여주인공의 성격이 이처럼 일률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역시 기녀에 대한 소설적 수용자세가 마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일단 〈주생전〉의 작가가 여성인물로서 기녀와 규수라는 서로 다른 신분적 위치에 있는 여성을 등장시킨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작중 주인공이 두 규수 사이에서 애정의 줄다리기를 했다면 이는 當代 독자층의 독서감각에 심대한 저항을 초래했을 것이고, 두 기녀 사이에서 문제가 되었다면 주생이 벌이는 애정편력의 순수성이 의심받을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생전〉에서 선화와 배도의 갈등관계는 결국 배도의 죽음으로 청산된다. 이러한 結構는 이미 보았듯이 주인공 주생의 윤리성의 문제를 제기할 만한 대목이었지만은 오히려 그 寫實的 성격을 분명히 보여주는 부분이다. 기녀는 현실적으로 사대부문인과 맺어질 수 있는 신분적 위치에 있지 않았다. 후기소설에서 기녀와의 일대일의 행복한 결말은 그것이 사회구조적 변화라는 외부적 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春香傳〉처럼 미학적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경우에서 통속적 작품으로 빠져들 수가 있었다. 이는 윤리적 고착성을 소설 내에서 보상하고자 하는 기대심리의 표현으로 당대 사회의 신분적 실상을 액면 그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녀는 소설에서 성격화되고 있는 것처럼 사대부문인과 酬酌을 일삼으며 風流興趣를 謳歌하였던 낭만적 존재는 아니었다. 따라서 후대 소설에서의 기녀상은 상층문인의 시각에서 치장되고 왜곡된 虛像에 불과하다. 기녀는 오히려 신분의 질고에 매여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양반들의 酒宴에 美色과 才技를 제공해야 하는 賤流였을 뿐이다. 이러한 기녀의 존재에 대한 정확하고 현실적인 이해는 석주의 시문학 속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年年春色到荒墳 해마다 봄빛이 거친 무덤에 이르면  
花似新粧草似裙 신장같은 꽃, 치마같이 풀이 돋고  
無限芳魂飛不散 수많은 방혼은 날아 흩어지지도 않아  
至今爲雨更爲雲 지금 비되어 내리고 다시 구름되네

〈嬋娟洞〉<sup>47)</sup>

위 시의 소재가 된 嬋娟洞은 平壤城 七星門 밖에 있는 기녀들의 무덤이라 했다.<sup>47)</sup> 新粧紅裙을 뜯내면서 일생을 환락에 젖어 살았으나 그 최후는 부질없는 芳魂으로 남아 흩어지지도 못하고 비되고 구름되어 평생의 통한을 이어간다는 내용이다. 죽은 기녀를 애도한 〈悼妓〉<sup>48)</sup> 역시 동일한 정감을 불러 일으키는 시이다. 결국 기녀의 사회적 신분상의 실상과 그 삶의 비극성은 석주에게 정확히 인식되어 작품에서 배도의 죽음이라는 결구로 소설미학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주생전〉의 이러한 사실적 성격묘사와 갈등구조는 〈주생전〉이 소설형성기에 창작되었고, 아직 여성간의 관계를 문제삼는 서사적 전통이 마련되지 않았던 시적 위치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주생전〉이 일정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또 소설이라는 장르가 그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사회문화적 일양상으로 자리잡아 가는 이상, 여기에 대한 윤리적 간섭도 상대적으로 고조되었을 것이다. 〈주생전〉의 이러한 寫實性이 후대로 지속되지 못하고 여기에 머문 것은 이러한 사실에 근거한다. 이는 우리 소설사에서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주생전〉의 소설사적 의의를 재고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 7. 結 論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생전〉은 석주의 所作이다. 종래에는 〈조선문학사〉연표를 근거로 잠정적으로 이를 인정해 왔으나 최근 입수된 북한본의 後記에 근거하여 이를 확정지을 수 있는 실마리가 잡히게 되었다.

본 작품은 작중인물인 주생에게서 傳聞한 것을 석주가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그 창작성 여부가 문제시 되었다. 그러나 실제 내용에 있어 그 대부분이 석주의 창작적 산물임이 인정되어 왔다. 그렇다면 그 내용의 실제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47) 〈石洲集〉卷之七 p. 259

48) 洪萬宗, 小華詩評. 嬋娟洞在箕城七星門外 卽葬妓之處也

49) 王骨埋靈鎮 金爐罷夕薰 柳藏蘇小宅

花繞薛濤墳 一夢秦樓月 孤魂楚峽雲

年年大堤草 空覺舞詩裙

(〈石洲集〉卷之三 p. 106)

그렇게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며, 본 작품의 구성양식은 傳記體의 허구화 과정에서 작가의 체제 외적 세계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려는 서사적 처리방식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최척전> <남궁선생전>과 같은 동서대의 작품들의 동일구성을 통해서 이를 확인 할 수가 있다.

작품의 주된 모티프로 기능하는 愛情談은 당전기의 <회진기><곽소옥전>에서 수용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검토하면 그 영향관계는 극히 미미한 것이다. 석주는 이들 소설과 함께 中國 傳奇小說들을 폭넓게 섭렵하여 이를 작품에 적절히 수용하는 한편, <금오신화>와 같은 전대소설의 성격패턴까지도 원용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사실은 傳聞했다는 기록 자체를 사실로 받아들인다 해도 그 素材化의 폭은 제한적이었을 것임을 나타내주는 한편, 그 창작성을 제고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주생전>은 唐代 산문문학적 흐름을 실험적으로 수용했던 석주의 문학적 감각과, 애점담을 주된 모티프로 활용할 수 있었던 발랄한 의식의 토대 위에서 형성된 것이라 하겠다.

2. <주생전>은 작중 주인공이 겪는 사건들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구성한 것이다. 그 구성에 따른 의미단락을 보면 서사적 자아의 비감어린 생의 좌절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終結部의 분위기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본 작품은 구성적 전개에 따라 각 의미단락이 반복적 효과를 지닌 역설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인공의 방임적 일탈의식이 강화되면 될수록 규범세계의 통제와 간섭도 강화되면서 결국 주인공은 그러한 세계의 논리에 순응해가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러한 순응자체가 주인공에게 이상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는 못하며 궁극적으로는 세계 자체가 안고 있는 모순과 연결됨으로써 불행이 열린 구조를 통하여 반복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3. 본 작품의 미학적 기초를 밝히려는 논자들의 연구가 있었으나 비극성을 애정이라는 문제에만 국한시킴으로써 立論의 설정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었다. 비극은 비극적 주인공의 비극적 결점에서 비롯되며 그것은 주인공의 성격적 결함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성격적 결함은 개인의 의지의 결여나 유약성으로 이해될 수는 없다. 그것은 세계의 간섭이 규범세계에의 귀속과 일탈의지의 양면에서 동시에 작용하여 주인공이 어느 세계에도 귀속되지 못하는 운명적 파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본 작품의 비극적 효과는 주인공의 비극적 결점에서 비롯되어 어느 세계에도 귀속되지 못하고 표박, 유리될 수 밖에 없는 한 개인의

존재적 실상을 드러내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4. 작품의 미학적 기초가 되고 있는 표류의식이라는 존재론적 문제의식은 석주의 시대인식에서 오는 지기현시의 소설적 투사이다. 그 표류의식은 작품에서 고향이라는 낭만적 공간에의 회귀의지로 나타난다. 그러나 석주의 실제고향이 경성에 위치함으로 해서 귀향과 일탈의 이중적 의식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 점은 작품에서 각각의 상징화된 공간을 통하여 정리되어 나타나고 있다.

작중인물이 갖는 공명입신과 이의 낭만적 초월이라는 양면성은 석주의 20대에 겪었던 세계관적 다양성에서 기인하여 허구적 인물을 통하여 성격화된 것이다.

5. 작품에 나타난 애정을 중심한 갈등구조는 사실적 성격을 여실히 보여준다. 둘 이상의 여성을 작품 내에서 처리하는 소설적 관행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작가의 창의적 개성에 의하여 시도적이고 실험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이런 점은 석주의 탁월한 현실감각에 힘입어, 투식적이고 관행적으로 사회적 이념으로 분식시켜 여성간의 관계를 처리했던 후대 애정소설과는 달리, 사회적 事實을 소설적 진실을 통해 寫實的으로 구현할 수 있게 한 요인이 되었다.

### 參 考 文 獻

石洲集(旰晟社 影印本, 1982)

蔣防, 霍小玉傳(唐人傳奇小說, 臺灣 世界書局, 中華民國67)

元稹, 會真記(唐人傳奇小說, 臺灣 世界書局, 中華民國67)

趙緯韓, 崔陟傳(韓國漢文小說全集, 林明德 編, 臺灣 中國文化學院, 1986)

洪萬宗, 小華詩評(洪萬宗全集, 太學社 影印本, 1980)

許筠, 南宮先生傳(許筠傳書, 亞細亞文化史 影印本, 1980)

라철화 역, 립제·권필작품선(북한 조선문학예술동맹, 1963)

文旋奎, 花史·周生傳·鼠大洲仙(通文館, 1961)

金允植, 文學批評用語辭典(一志社, 1976)

郭箴一, 中國小說史(臺灣 商務印書館, 中華民國67)

金起東, 韓國古典小說研究(教學研究社, 1983)

金鉉龍, 韓中說話小說比較研究(一志社, 1983)

臺灣中華書局 編, 中國文學發達史, 中華民國69

- 蘇在英, 古小說通論(二友出版社, 1989)
- 金一烈, 周生傳 小考(어문논총11호, 경북대학교국어국문학과, 1977)
- 김재수, 주생전연구(한국언어문학V. 21, 한국언어문학회, 1982)
- 文範斗, 權輶의 酒肆丈人傳 研究(어문학52집, 1991)
- 王叔誼, 周生傳의 比較文學的 考察, 한양대학교대학원, 1986
- 이채연, 주생전의 구조와 의미(국어국문학 제26집, 부산대학교국어국문학과, 1989)
- 李憲洪, 實事의 小說化(韓國古典小說의 熙明, 亞細亞文化社, 1990)
- 鄭學城, 傳奇小說의 문제(韓國文學研究入門, 黃湔江 等 編, 知識産業社, 1988)
- C. Brooks & Heilman, Understanding Drama (New York, 1965)
- Northrop Frye, Anatomy of Criticism (Princeton University, 1971)
- Robert Scholes, 문학과 구조주의, 위미숙 역(새문사, 1987)